

## 농촌진흥청 개발 '축진듀록' 이달의 우수 종돈 선발

- 돼지개량 연결망(네트워크) 유전능력 평가에서 성장성·체형 우수성 확인
- 핵군 인공지능(AI)센터 활용...우수 유전자 전국 확산 기대
- 국내 종돈 개량 속도 높여 양돈 산업 생산성 및 종자 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 사업' 3월 유전능력 평가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축진듀록' 종돈(씨돼지) 2마리가 우수 종돈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총 7곳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두록 수태지 346마리를 대상으로 성장 능력과 체형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진듀록 1906'과 '축진듀록 2027'이 우수 종돈으로 선발된 것이다.

'축진듀록'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종돈의 국내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개발해 온 한국형 종돈이다. 2025년까지 전국 인공지능(AI)센터와 농가에 총 2,905마리가 보급됐다.

'축진듀록 1906'과 '축진듀록 2027'은 체중 105kg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 133.4일과 128.8일로, 평균치인 147일보다 보름 이상 빨랐다.

유두 수는 좌우 각각 7개씩 총 14개로 균형 있게 발달해 번식 능력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등지방두께 또한 각각 10.1mm, 12.2mm로 적정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7일 핵군 인공지능(AI)센터에 입식한 '축진듀록' 2마리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액 생산에 활용된다. 핵군 인공지능(AI)센터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돼지를 선발해 정액을 생산·보급하는 민간 시설로, 우수 유전자를 전국 종돈장에 확산해 국내 돼지개량 수준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다.



축진듀록 우수 종돈 1906



축진듀록 우수 종돈 2027

한편,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국내 종돈장들을 하나의 평가 체계로 묶어 국가 단위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수 종돈을 선발·교류·평가해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종돈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두록 품종 분야에는 전국 14개 종돈장이 참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시동 과장은 "우수한 종돈을 선발해 현장에 보급하는 일은 국내 양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축진듀록'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확대 보급해 우리 돼지 산업의 종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축진듀록' 소개 및 보급 현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1-580-3440)
		담당자	연구사	김영신 (041-580-3453)

### □ 축진듀록 소개

- ‘축진듀록’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 종돈장에서 사육을 기피하는 ‘두록’ 씨 돼지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여 보급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온 한국형 종돈이다.
- ‘축진듀록’은 산육능력과 육질이 우수하며, 물돼지고기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를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2개소(충남축산기술연구소, 경기도축산진흥센터)와 종돈 보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급 체계를 이원화하고, 농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축진듀록 보급 현황

년도	보급 마릿수			보급
	암	수	합계	
2007~2016	153	1,008	1,161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2017	25	102	127	양돈과 +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2018	0	93	93	
2019	0	76	76	
2020	40	73	113	
2021	8	54	62	
2022	112	163	275	
2023	110	134	244	
2024	222	242	464	
2025	142	148	290	
<b>합계</b>	<b>812</b>	<b>2,093</b>	<b>2,905</b>	